“14억 중국 입맛 잡으면 해외시장 30%는 정복한 셈”

BIZ & PEOPLE

㈜훌랄라 중국 진출 **김병갑** 회장



㈜훌랄라 임직원들이 중국 베이징 ‘애플틴’ 오픈식에서 중국 시장 공략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 베이징(중국) 훌랄라

中 베이징에 ‘라떼떼커피’ ‘애플틴’ 론칭
2년간 시장조사…글로벌기업화 첫 걸음

“기업철학? 점주가 행복해야 본사도 행복
장애인 등 지원…사회공헌은 기업 책임
가맹 1000호 돌파…더 공격적으로 투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선두주자인 ㈜훌랄라가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로 눈을 돌렸다. 훌랄라는 최근 중국 베이징에 케익&와플 전문점 ‘라떼떼커피’와 이탈리안 레스토랑 ‘애플틴’을 론칭했다. 14억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세계를 향한 맛 창조, 함께 가는 가치 창조, 고객만족의 행복 창조의 경영이념을 앞세워 글로벌기업으로 진군하는 훌랄라의 중심엔 김병갑 회장이 있다. 김 회장은 맨손으로 훌랄라를 창업해 15년 만에 국내 굴지의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키웠다. 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부지런한 CEO로 유명하다. 신규 가맹점 오픈식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물론 전국 가맹점을 돌며 매출현황과 주변 상권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베이징 ‘라떼떼커피’와 ‘애플틴’ 개막식에서 김 회장을 만났다.

-‘라떼떼커피’와 ‘애플틴’ 베이징 직영점을 오픈 했는데 중국 진출 전략은 무엇인지.

“그동안 훌랄라는 글로벌 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해 완벽한 플랜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힘써왔다. 이번 ‘라떼떼커피’와 ‘애플틴’ 베이징 직영점은 그 결실이자 글로벌화의 포문을 연 것이다. 사실 중국 진출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시장조사를 했다. 중국의 음식과 중국인들의 취향은 물론 중국 문화 연구까지 모두 마쳤다. 먼저 베이징점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뒤 고급소비문화의 중심인 백화점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미 중국에 1000여 곳의 지점을 확보한 기업과 많은 부분 교감을 이룬 상태다. ‘애플틴’은 기존 완제품 공급 조리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식재료의 수제작업 조리를 추구해 정성이 담긴 이탈리아의 맛과 풍미를 선물할 것이다.”

-글로벌기업화의 첫 출발점으로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많은 한국기업들의 중국에서 손들고 우리나라로 돌아가는 추세다. 그러나 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다. ‘불황기에 투자하라’는 금언도 있지 않은가. 중국을 정복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이 되기 힘들다. 14억 인구의 중국시장에서 성공하면 세계 시장의 30%는 정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차 문화가 뿌리 깊은 중국도 최근엔 커피문화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세련된 실내 인테리어와 전문 슈퍼바이저들의 철저한 교육시스템을 통해 고객 서비스 마운드로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중국인들의 독특한 음식문화 중의 하나가 푸짐하게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을 발판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 ‘훌랄라치킨’ 역시 중국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지금 입점할 상가를 물색 중에 있다.”

-김 회장은 부지런한 ‘현장맨’으로 정평 나있다. 열정과 신념은 어디서 나오나.

“‘돈을 버는 것은 조금 버는 것이다. 명예를 버는 것은 더 많이 버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와 정직을 얻는 것은 전부를 버는 것이다’라는 게 나의 신념이다. 정도경영과 투명경영 그리고 휴먼경영을 기업철학으로 구현하고 있다. 한때 패션사업을 운영하다 부도나서 자살까지 생각한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혼자만 잘사는 것이 아닌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프랜차이즈 점주가 행복해야 본사가 행복할 수 있다.”

-15년 만에 대한민국 굴지의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공했는데 비결은 무엇인가.

“‘애플틴’이 2013 한국창업경영인대상 외식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공한 배경에는 독특한 맛과 소스 그리고 조리과정을 단순화 했던 것이 일조했다. 또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물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을 1일 배송 시스템으로 구축해 빠른 배송 서비스와 안정된 물류공급을 통해 식자재를 일괄공급 한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력도 강점이다.”

-봉사활동과 후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벌 만큼 벌어라. 모을 만큼 모아라. 베풀 만큼 베풀어라’는 성경구절이 있다. 그동안 장애인들과 독거노인들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아프리카 10개국에 10년 동안 매년 1개 씩 우물을 지원하는 ‘우물파기 사업’도 후원했다. 또 2010년 아이티 강진과 일본의 초대형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성금을 후원하기도 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에브리데이 기부’다. 각 가맹 점포에 제공되는 배달박스 1개 당 2%를 떼어 전액 본사가 기부하는 방식이다. 봉사하고 후원하면 기쁘지 아니한가. 사회공헌은 모든 기업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계획과 포부를 말해 달라.

“우리는 이미 가맹점 1000호점을 넘어섰다. 어떻게 보면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럴 때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우리는 2011년에 ‘라떼떼커피’를 론칭했고 2012년엔 ‘애플틴’을 시장에 진출시켰다. 올해엔 곱창과 닭발 전문점 ‘곱닭’과 초밥전문점 ‘스시맨’, 회전꼬치 전문점 ‘꾼탄’을 론칭했다. 또 오리전문점 ‘덕맨’과 천하제일왕족발 ‘천족’이 오픈 준비 중이다. 가맹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가맹점을 만드는 것 또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맹점주가 잘살아야 우리가 행복하다. 앞으로도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향해 나갈 것이다.”

김 회장은 활기찼다. 힘이 넘쳤다. 온 몸에서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김 회장은 인터뷰가 끝날 무렵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 주겠다. 글로벌 기업은 말이 아닌 전략과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리곤 직원들과 함께 힘찬 파이팅 구호를 외쳤다. “정직 3보! 전진 3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정직 3보는 똑바로 보고, 올바로 보고, 제대로 보자는 의미이고, 전진 3보는 희망을 보고, 미래를 보고, 세계를 보자는 뜻”이라고 대답했다. 글로벌기업으로 가는 ‘훌랄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베이징(중국) | 연제호 기자 sol@donga.com


“14억 중국인의 입맛을 잡아라” ㈜훌랄라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케익&와플 전문점 ‘라떼떼커피’와 이탈리안 레스토랑 ‘애플틴’ 베이징 1호점을 론칭했다. 훌랄라 김병갑 회장은 오픈 기념식에서 “훌랄라의 중국 진출은 글로벌 기업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베이징(중국) 훌랄라

클리닉 Q&A 백창희의 어깨를 활짝 펴고 삽시다

지속되는 어깨통증이 마음의 병 키운다

Q 어깨가 아픈 뒤로 짜증만 내고 사람이 변했어요. 왜 그럴까요?

A “어깨 좀 아픈 데 그렇게 힘든지. 짜증만 내고. 우리가 더 힘들어요” 많은 ‘어깨 병’ 환자들의 가족은 ‘짜증을 많이 내 우리가 더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어깨가 아프면 마음까지 아픕니다. 완도에서 오신 64세 어르신은 허리가 완전히 굽어져 있고, 오른팔을 전혀 올리지도 못하고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어깨가 칼로 째듯이 아프다’며 고통스러워하셨지요. 광주에서 사는 아들이 어느 날 집에 들렀다 너무 힘들어하는 어머님을 보고 직접 모시고 왔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팔도 못 올리는데 머리는 어떻게 감으셨어요?’ 했더니 집에 계시는 80세가 넘은 노모가 감겨 주셨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환자 본인이든 가족이든 병 자체 못지않게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늘 웃던 아내가 짜증만 낸다고 못마땅하던 어르신께 “늘 웃으시려고 어깨가 저 지경이 되도록 참으신 거예요. 빨리 나아야 다시 웃으시지요.”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깨질환 환자들은 참아온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 통증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아줘야 합니다.

어깨통증의 강도는 증상과 진행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짐작보다 훨씬 아플 뿐만 아니라 매우 불편한 통증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이 어깨를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아파도 쓸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다보니 짜증이 나고 만사가 귀찮아지면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어깨통증으로 우울증까지 경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을 진료하다보면 어깨통증 그 자체로 받는 고통에다 아무도 몰라주는 야속함이 더해져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질환과 달리 병 취급을 받지 못해서 더욱 가족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니 더욱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어깨통증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겐 진료실에서의 원칙이 생겼죠. 병원을 찾으신 모든 분들과 가장 먼저 악수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악수를 하는 데는 많은 의미가 있지요. 인사의 의미, 나를 찾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리고 손의 감촉을 느끼면서 그분의 직업이나, 평소 어깨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반은 치료가 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주사나 약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 공감해주어 마음까지 개운하게 치료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수백병원 원장·대한관절학회 정회원
저서 ‘어깨는 날개입니다’ 외

원데이 치과와 함께하는 아이(齒) 종아!

‘원데이임플란트’ 교합력 꼼꼼히 따져보세요

원데이임플란트는 보철물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축소해 하루 만에 임플란트를 하는 시술이다. 임플란트에 필요로 하는 보철물을 치과 내 자체 기공소에서 제작함으로써 하루 이상 걸리던 보철물 제작시간을 15분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임시치아 단계를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단 10~20분이면 충분한 당일 임플란트가 가능해졌다.

원데이치과에서는 임플란트의 교합력을 위해서 T-Scan Ⅲ(교합 분석장비) 라는 첨단장비로 환자 개개인에 맞는 임플란트 식립 부위와 각도를 파악해 정확한 뼈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다. 3차원 CT 분석으로 치아와 치아 사이 0.01mm의 미세한 오차를 분석함으로써 임플란트의 교합력을 높이고 있다.

●완벽한 교합력을 위해 T-Scan Ⅲ 진단

임플란트 시술 도중 발생한 미세한 오차는 후에 임플란트 및 주변 치아에 영향을 주어 치아를 흔들리게 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에는 재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임플란트의 교합력은 부작용은 물론 임플란트 수명과 환자의 회복속도, 외관상의 아름다움까지 여러모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시에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임플란트의 심미성은 의사의 숙련도에 달려

임플란트의 교합력을 높여 안정성을 확보했다면 그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심미성이다.



웃을 때, 말할 때마다 드러나는 치아 이기에 기능적인 부분은 물론 자신의 치아 및 얼굴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치아를 가지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플란트의 심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장비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숙련된 전문의의 실력이다.

환자의 치아상태, 얼굴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환자에게 어울리는 치아를 제작하는 것은 전문의의 실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가 축적된 의사에게 받는 것이 임플란트의 심미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원데이치과에서는 시술의 성공과 환자의 만족도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상담을 김진환 대표원장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 밀레와 공동마케팅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가 바캉스 시즌을 맞아 고객 초청 캠핑을 개최하고 경품으로 차량을 증정하는 등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와 공동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쌍용차는 밀레와 협력해 지난 20~21일 충남 태안의 청포 아일랜드 캠핑장에 50가족을 초청해 ‘코란도 투리스모와 밀레 진실캠프 가자’ 이벤트를 개최했다. 밀레의 아웃도어 용품을 적용한 코란도 투리스모 전시 및 시승 행사도 진행됐다. 또한 28일까지 밀레 캠핑 텐트를 구입하는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코란도 투리스모(1대)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당첨 결과는 8월 20일 밀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당첨자는 개별통보)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